

自主國防과 國防費(Ⅱ)

— 國防費의 適正水準을 中心으로 —

(Optimal Expenditure for National Self Defence)

合 同 參 謀 本 部
戰 略 企 劃 局

III. 要望되는 國防費 水準

1. 國防費의 本質

經濟學的 立場에서 國防費의 効用性에 對하여는 贊反의 理論이 있다. 國防費는 非生産的 이어서 經濟成長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며 消費 以外の 아무 것도 아니라는 主張이 그 하나이다. 國防費에 配分되는 量만큼 國民經濟에 必要한 投資를 減少시키고 經濟의 擴大 再生産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事實을 否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는 反對로 國防費는 國家의 生存과 安保를 維持하는데 있어서 極히 重要한 國家保衛活動을 위한 費用이며, 國家의 安全이 保障되지 못하는 限 生産·流通 및 消費等 모든 經濟活動이 不安과 危險에 處하게 되고 國民들은 하루도 安心하고 經濟活動에 從事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全的으로 生産的이라는 理論도 있다. 事實上 오늘날의 國防費는 政府 豫算의 一部라는 財政的인 領域을 超越하여 國民들의 未來生活과 運命에 直結되는 것으로서, 어떤 意味에서는 事故發生의 蓋然性에 對備하는 保險料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保險料라는 消極的인 意味에서 보다 더 積極的인 意味를 갖는 것은 保險이 事故 그 自體를 豫防하거나 事故에 對應할 수 있는 能力이 없는데 反하여 國防費는 事故(戰爭)를 豫防하고 敵의 侵攻에 應戰하여 擊退함으로써 安全을 圖謀하거나 回復할 수 있는 生産的인 힘의 源泉이 된다는 面에서 보다 더 積極的인 意味

를 갖는다는 事實이다. 즉, 國防費는 그 直接的 效果로서 戰爭 抑止力과 制限戰爭 遂行能力이라는 軍事的 價値를 產出해 내는 것이다.¹⁵⁾

그렇기 때문에 Adam Smith도 「훌륭한 國防은 富裕보다도 重要한 일」이라고 竭盡하고 있는 것이다.

國防費가 經濟安定에 미치는 影響에 對하여는, 그 나라의 經濟構造와 그 當時의 經濟條件에 따라 plus의 效果 또는 minus의 效果를 가져 온다는 것이 學者들의 共通的인 理論이다. 國防費는 惡性 inflation을 發生시키고, 增稅에 依하여 勞動과 企業意慾을 低下시키며 또한 生産 및 消費의 直接統制는 生産能率을 低下하여 經濟成長을 阻差할 것이라는 minus 效果가 指摘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要素들이 國防費 負擔 限界를 決定하는 尺度가 된다는 것이다. 한편 國防費는 一種의 deflation 對抗力으로서의 景氣後退의 防壁을 提供하며, 有効需要效果, 生産促進效果, 社會資本 造成 維持效果를 隨伴할 수 있으며, 軍事上的 技術發展, 教育訓練, 土木工事 등이 國民經濟 全般에 附隨的인 收獲을 가져 온다는 plus 效果가 指摘되고 있다.¹⁶⁾

이러한 plus 또는 minus 效果들은 어디까지나 그 나라의 經濟構造와 經濟條件에 依하여 左右되는 것이지만 모든 나라에 대하여 普遍的으로 適用되는 것은 아니다. 經濟規模(國力)와 國民所得水準 그리고 適正規模의 人口를

15) Hitch, C.J. and McKean, R.N., op. cit. p.66-83.

16) Ibid., Chapter 5. Indirect Effects of Defense Spending

保有하고 있느냐에 따라 決定될 것이며 特別 強調될 것은 國民의 意識構造 乃至 意志如何에 따라 크게 左右될 것이다.¹⁷⁾

그렇다면 一國의 可用資源中 얼마만큼을 國防을 위해 使用하여야 할 것인가를 決定하는 基準은 무엇인가? 軍事的 所要만을 強調하는 側과 財政的 限度만을 強調하는 側이 있다. 前者는 國防上 不可缺한 戰略的 所要를 確定하고 이를 充足시킬 資源이 捻出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세우는 所要第一主義의 立場이다. 後者는 財政政策面에서 國防費 支出의 限度를 미리 定하고 난 다음에 그 範圍內에서 戰略的 所要가 調整되어야 한다는 豫算第一主義의 立場이다.¹⁸⁾

여기서 留意할 것은 豫算第一主義나 所要第一主義나 하는 論爭은 平時 또는 冷戰下에 있는 나라에서나 存立 可能하며, 戰時 또는 準戰時下의 나라에서는 問題가 될 수 없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그 나라가 處해 있는 安保狀況, 즉 威脅의 程度가 國防費決定의 第一次의 考慮要素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勿論 敵의 軍事戰略과 戰術 그리고 能力에 대한 判斷과 우리의 軍事戰略 및 軍事能力의 比較에서 언어지는 軍事力 均衡과 關聯된 戰略的 所要가 包含된다. Morgenstern은 國防費 適正水準 決定에 있어서 가장 根本的인 戰略的 考慮事項은, 「國家經濟와 國民의 經濟的 福祉問題가 基本的인 要素가 아니라는 點을 絕對的으로 明白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強調하면서 「國家의 生存과 安保問題가 모든 것에 優先한다. 最少限의 軍事的 所要와 最少限의 政策的 施行基準이 決定된다면 國家經濟는 그所要를 產出해내지 않으면 안된다. 그 所要가 國家經濟 能力을 上廻할 수도 있다. 그렇다하더라도 결코 敵에게 降伏해 버릴 수는 없으며, 다른 方法을 考慮해야 한다. 即, 同盟國에 依存한다든가, 世界輿論에 依存한다든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이 쓸모가 없게 된다면, 平和를 사랑하는 弱小國은 결코 生存할 수 없을 것이

다」라고 指摘하고 있다.¹⁹⁾

戰時나 準戰時가 아닌 狀況下에서는 國家가 處해 있는 安保狀況을 어떻게 評價하느냐 하는 問題와 關聯하여 國防上의 所要가 民生이나 經濟發展을 위한 다른 所要보다 어느 程度 優先해야 하는가에 따라 選擇의 問題가 提起된다. 따라서 所要나 豫算, 그 어느 한 쪽에만 置重할 수는 없을 것이다.²⁰⁾

그러나 國防費란 그 本質上 어디까지나 所要에 依하여 決定되어야 하는 것이다.

實際上 最惡의 경우 GNP 中 國民들의 最低生活과 이에 附帶되는 活動을 위하여 必要로 하는 支出을 除外하고는 모두 다 國防費로 負擔될 수 있다는 것을 經驗이 立證하고 있다. 따라서 「그 以上은 감당하지 못한다는 어떠한 魔術的인 數字가 存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²¹⁾

또한 經濟가 相當한 比率로 成長하고 있는 國家에 있어서는 國民들의 急激한 消費節減없이도 國防費의 增加가 可能해질 것이라는 事實은 充分히 豫測할 수 있는 것이다.

2. 國防費 要望 水準

果然 우리나라의 國防費 負擔率을 對 GNP 比 4% 線으로 계속 維持해도 좋을 것인가? 그것은 國防所要를 어느 程度 充足시킬 수 있는 水準인가?

이 물음에 대한 解答을 얻기 위하여, 우선 우리는 1963年以來 繼續, 果然 4% 線만 維持해 왔었는가 하는 것을 따져 볼 必要가 있다. 그것은 勿論 그렇지 않았다. 相當한 額數에 達하는 美國의 直接軍援이 매우 重要한 몫을 擔當해 왔기 때문이다. 直接軍援까지 合친 總國防費가 GNP에 대하여 차지하는 比率를 計算해 보면 다음과 같은 結果가 나온다. 1960年代 初에 最高 17%로 부터 GNP의 成長과 關聯하여 相對的으로 그 比率이 낮아져 1964年 부터 1972年 期間中에는 通常 8% 乃至 7%線

17) Ibid., p.97.

Morgenstern, O., op. cit., p.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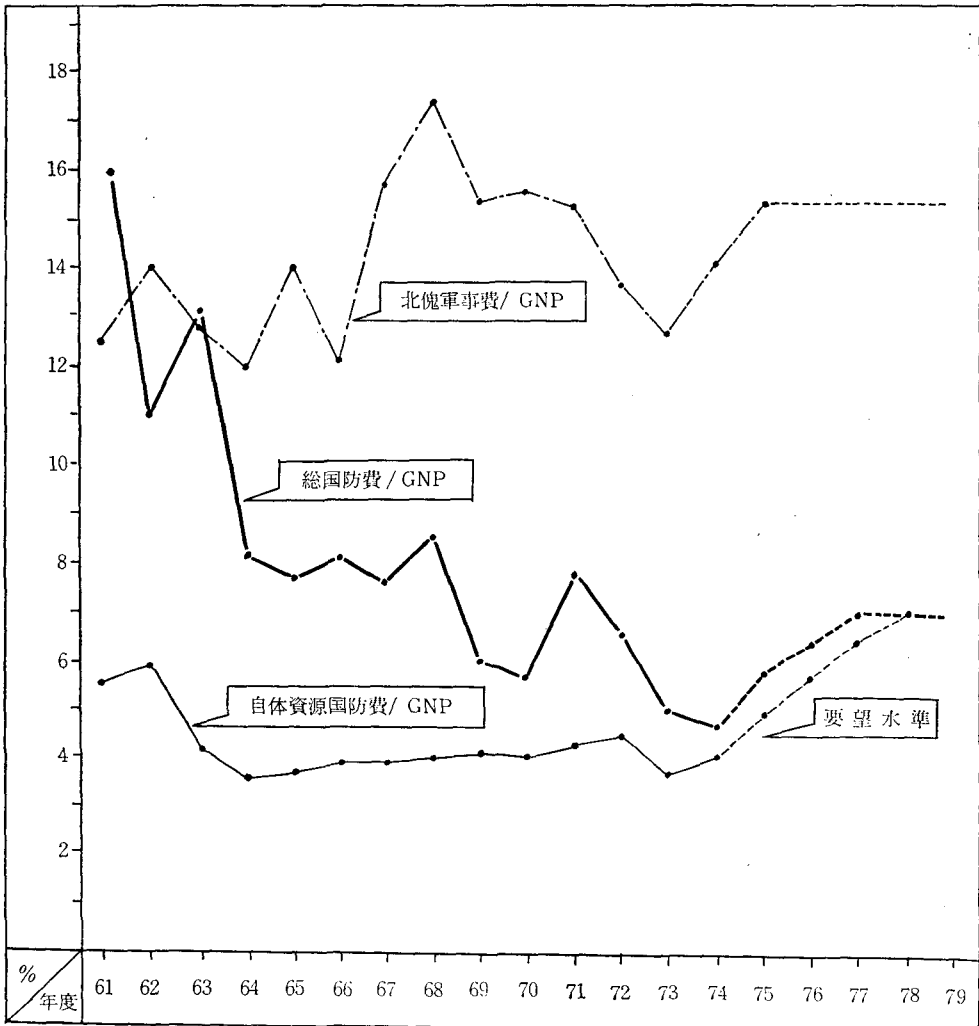
18) Hitch, C.J. and McKean, R.N., op. cit., pp. 46.

19) Morgenstern, Oskar, THE QUESTION OF NATIONAL DEFENSE, New York, 1959, p. 192.

20) Hitch C.J. and McKean, R.N., op. cit., p.48.

21) Ibid., p. 47.

国防費/GNP 趨勢



圖表 1.

이 維持되어 왔다(1969年과 1970年 兩個年度는 例外). 代充資金의 轉入이 終結되고 軍援이 減縮되면서 부터 5%線 以下로 下落하기 始作했는데 이러한 現象은 Nixon Doctrine 以後 1973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結局 1973年이래 每年 下落되어 1975년에는 4% 線으로 떨어지게 된 것이며 이때 가장 어려운 局面에 當面하게 된 것이다. 즉, 國內財源이 많이 增加되었으나 外部 支援이 激減되었기 때문에 總國防費는 오히려 相對的으로 減縮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國防費 適正規模는 어느 程度이여야 하는가를 決定함에 있어서 考慮되어야

할 要素를 다음과 같이 列舉할 수 있을 것이다.

- (1) 南·北韓의 軍事力 均衡狀態와 敵의 威脅 程度
- (2) 駐韓 美軍의 將來
- (3) 軍事戰略과 軍事力 所要
- (4) 軍 運營 維持面에서의 所要
- (5) 外國 援助의 展望
- (6) 經濟構造와 經濟條件

(1)에서 (4)까지는 所要의 側面에서 提起되는 要素이고 (5)에서 (6)까지는 豫算의 側面에서 提起되는 要素라 하겠다.

첫째로 考慮하여야 할 가장 重要한 要素는

亦是 敵의 威脅과 關聯된 問題이다. 北傀의 軍事力이 우리의 것에 比하여 여러 分野에서 量的인 優勢를 占하고 있다는 事實은 이미 秘密이 아닌지 오래이다. 航空機, 艦艇, 戰車 그리고 砲兵 火力 等에 있어서 모두 우리보다 數的으로 優勢하며, 事實上 南·北間에는 裝備의 量的인 面에서 不均衡이 存在하고 있다. 軍事力 均衡의 確保없이는 戰爭을 抑止할 수 없으며, 따라서 不安狀態의 繼續이 不可避하게 된다. 軍事力 均衡의 確保없이는 南北協商이나 平和統一을 위한 努力을 힘으로 뒷받침할 수는 없다. 따라서 早速히 軍事力 均衡이 回復되어야 한다.

여기서 留意하여야 할 것은 科學技術의 發達과 더불어 戰爭費用이 高價化한다는 事實이다. 敵 1名을 射殺하는 데 는 費用이 美國의 統計에 의하면, 獨立戰爭때에는 2千弗, 第一次 世界大戰때에는 2萬弗, 第二次 世界大戰때에는 5萬弗이 所要되었다는 統計가 이를 말해주고 있다.²²⁾ 또한 이스라엘의 경우 1967年六日戰爭때의 一日戰費는 1億弗이었으나 1972年第四次 中東戰爭때에는 約 3.5億弗로 集計되고 있다.²³⁾

이는 現代 科學技術 發達의 所産인 各種 裝備 및 物資가 漸次 高價化하고 있다는 事實과 關聯된 것이다.

몇가지 例를 들면, 第二次 世界大戰때 對空 火力으로서 使用된 高射砲는 오늘날의 超音速 噴射機에는 이미 使用 價値가 없어졌으며, 地對空 誘導彈이 이에 代替되었으나 高射砲와 地對空 誘導彈의 價格間에는 相互 比較될 수 없는 懸隔한 隔差가 存在한다. 1950年代 後半期의 新銳 戰鬪機였던 F-86 戰鬪機는 이미 F-4 팬텀機나 F-15 戰鬪機에 그 權座를 물려주었으며 F-86F 價格은 臺當 20萬弗이었으나 F-4E 팬텀機의 경우는 臺當 450萬弗(約 22億圓)이며 F-15의 경우는 臺當 無慮 1,000萬弗(約 50億圓)이 넘고 있다.

22) 武谷三勇 外, 原子戰爭, 東京, p.36.

23) 第4次 中東戰爭時 이스라엘의 戰費는 600億 乃至 700億弗로 評價되고 있다. 따라서 一日戰費는 3.3億 乃至 3.8億弗이 되는 셈이다.

둘째로 考慮될 것은, 우리는 그 동안 韓美 聯合 抑止戰略에 依存해 왔다. 駐韓 美軍이 南北間의 軍事力 不均衡을 메꾸는 役割을 擔當해 왔으며 現場抑止力으로서 機能하여 왔다. 그러나 Nixon Doctrine 以後 美國의 對外政策은 아시아에서의 軍事 不介入 政策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韓半島 問題의 政治外交의 解決과 關聯하여 駐韓 美軍의 撤收는 早晚의 差異가 있을뿐 時間問題로 남아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駐韓 美軍의 減縮 乃至는 段階的 撤收는 그만큼 우리 軍事力의 增強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駐韓 美軍이 있는 이 時間 空間을 最大限 効率的으로 活用하여 軍事力의 現代化 乃至는 增強을 促進시키지 않으면 안될 立場에 處해 있다. 最近의 國際情勢의 趨勢로 미루어 보아 더 以上 우리 國防을 남에게 依存하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戰力이 主가 되고 友邦의 戰力은 支援戰力으로 받아 들인다는 主體的인 立場에서 1980年代 初까지는 自主的인 戰爭抑止가 可能하도록 自體能力을 確保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現力 韓美聯合 抑止戰略으로부터 1980年代의 自主的인 抑止戰略으로의 移行을 위한 軍事力 所要는 北傀의 軍事力과의 相對的인 比較에서 導出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十餘年間 北傀는 裝備調達을 위한 投資費에 있어서 우리보다 約 四倍의 資源을 投入했으며 그 差額은 無慮 24億弗 規模로 나타나고 있다. 이미 資源을 投資한 量만큼 有形的 戰力面에서, 南北間의 航空勢力과 같이 隔差가 存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北傀도 現狀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 戰力 增強을 繼續할 것이라는 것도 아울러 考慮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넷째, 우리 軍이 當面하고 있는 問題中의 하나는 軍의 運營維持費가 계속 增加된다는 事實이다. 우리가 保有하고 있는 大部分의 裝備는 舊型인데다가 老朽狀態의 것이 相當히 있어 維持費가 많이 들고 특히 그 中에는 이미 生産이 中斷된 것이 많아 附屬品의 高價購入을 不可避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裝備維持

費는 繼續 上昇케 마련이다. 또한 新型 裝備들은 舊型 裝備보다 訓練費를 包含한 運營維持費가 매우 높게 먹힌다. 예를 들면 新型 F-4 戰爆機의 時間當 整備費가 舊型 F-86 戰闘機의 경우에 比하여 約 10倍나 所要되며, 燃料 消耗도 時間當 約 2.5倍나 된다.

또한 個人當 國民所得의 向上과 併行하여 將兵들의 給與 및 主副食 等の 處遇改善 等이 隨伴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다섯째, 美國의 援助中 重要な 몫을 차지했던 代充資金은 이미 終結되었으며 直接軍援에 있어서도 無償軍援은 1970年代에 들어 急激히 減縮되어 아마도 1970年代 後半에는 終結될 것으로 보인다. 無償軍援의 減縮과 關聯하여 「軍事販賣借款(FMS)」이 提供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一定 利率과 더불어 償還해야 할 債務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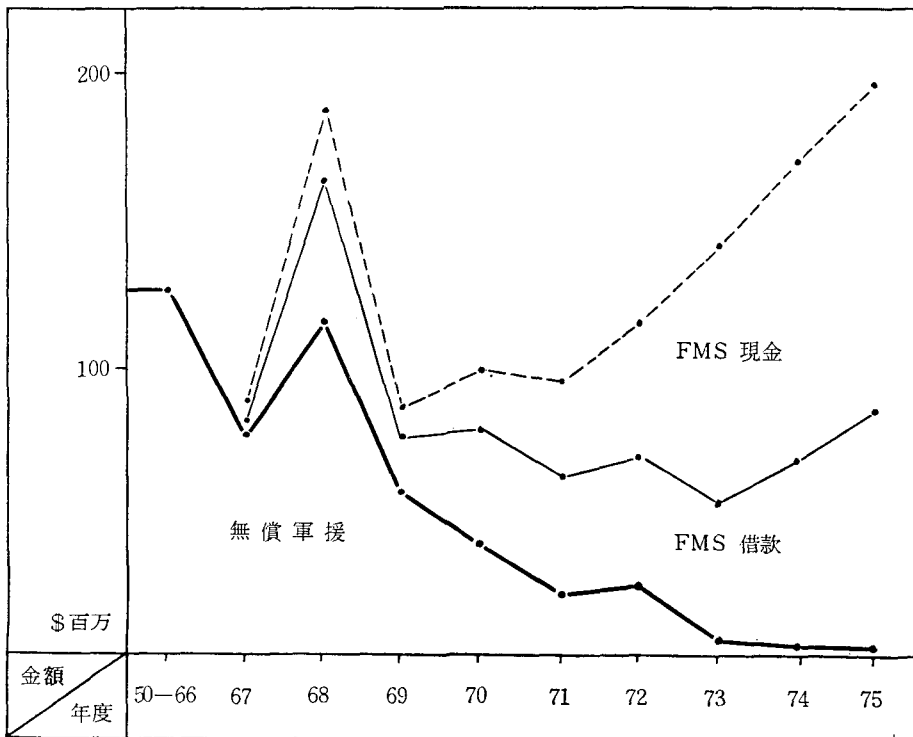
美國의 對韓軍援은, 自由中國의 境遇와 같은 類型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圖表 12에서 보는바와 같이 自由中國의 경우 無償軍援이 1998年 以後 漸減되어 1972年에 終結되었다. 그

反面에 FMS 借款 및 現金販賣가 相對적으로 增加되고 있다. 自由中國의 1972年이 우리의 경우 狀況의 큰 變動이 없는 限 아마도 1977年 頃에 다가 올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우리의 經濟는 相當한 成長을 이룩해 왔으나 60萬 大軍을 維持하기 위하여 充足할 國防費를 自體負擔하자면 아직은 過重하다는 것이 事實일 것이다. 그러나 多幸히 우리는 第三次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通하여 重化學工業의 育成에 置重하고 있어 相當한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 防衛産業의 基盤도 造成되어 가고 있다. 防衛産業의 育成을 通한 軍備의 調達은 우리 經濟에 여러가지 面에서 plus의 效果를 가져 올 것이 分明하다.

前駐韓 美大使 Poter氏는 1970年 8월에 우리 政府에 의한 第三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의 樹立과 때를 맞추어 그리고 Nixon Doctrine을 背景으로 「第三次 5個年 計劃은 防衛力維持面에서 좀 더 큰 自主力을 이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計劃되어야 할 것임을 強調하면서 韓國의 國防費가 GNP對比 4.1

對中國 軍援趨勢



圖表 2.

%水準에 不過하나 開發途上國 平均이 5.3%이며, 또한 韓國의 國民 一人當 國防費 負擔率이 年 9.5弗이나 開發途上國 平均이 13弗임을 勘案하고 美國의 援助가 줄어들는 것과 關聯하여 韓國의 防衛負擔이 增加되어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다. 그는 또한 「韓國의 높은 經濟成長率로 보아 國家經濟, 過度한 緊張이나 負擔을 줄이 없어도 韓國은 보다 큰 몫을 國防을 위하여 支出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支出해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²⁴⁾

Poter 大使의 見解에 대하여는 當時 적지않은 論難이 뒤따랐다. Nixon Doctrine이 內包하는 意味와 展望이 確實히 理解되지 않았던 當時의 韓國側 識者들은 大部分 從前과 같이 對韓 軍事援助의 必要性을 強調하면서 Poter 大使의 見解에 否定的인 反應을 나타냈다. 그러나 그로부터 5年後인 오늘날 우리는 그동안 美國의 援助가 大幅 減縮되었으며 國防費의 大部分을 自擔하고 있는 冷嚴한 現實을 發見하게 된다. 多幸히 그 間의 飛躍的인 經濟成長은 國民의 生活水準을 繼續 向上시키면서도 激增하는 國防費 負擔을 可能케 했다.

資源의 配分問題에 있어서는 經濟學的 側面에서 여러가지의 要素가 考慮될 수 있을 것이나, 우리가 處해 있는 國民安保狀況으로 미루어 보아 모든 問題는 「國民들의 올바른 時局觀과 싸워이기 겠다는 意志에 歸結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國防의 祈求는 希望만으로 達成되는 것이 아니며, 有事時 適切한 國防力을 產出(Output)해 내려면 平時 그에 相應하는 投資(Input)가 先行되어야 하는 것이다. 더구나 「經濟的 戰爭潛能力」(Economic War Potential)이 不足한 나라일수록 미리 準備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敵의 深刻한 威脅에 直面하여 國民의 消費性向을 多少 減少·調整하는 限이 있더라도, 國民들의 理解와 이를 견디어 낼 意志가 있다면 國防費는 相當한 水準까지 增加시킬 수 있다는 것이 經濟學者들의 거의 共通的인 見解인 것이다.

開放社會에서는 北傀와 같은 閉塞·獨裁體制와 달라 外部로 부터의 「展示效果」에 따르는 刺戟 그리고 「增大되는 慾望」을 抑制한다는 것이 決코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우리의 生命과 같이 所重히 생각하는 自由와 民主主義를 守護하고 이 땅에 生存을 누리자면 이에 相應하는 代價를 支拂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自明한 論理인 것이다.

以上에서 分析한 바를 土臺로 하여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즉, 駐韓 美軍이 現場 抑止力으로서 機能하고 있는 1970年代를 最大限 活用해야 한다. 卽 이 貴重한 時間을 利用하여 對北傀 軍事力 均衡을 반드시 確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앞으로 繼續 GNP의 7%水準 內外가 國防費에 配分되어야 하며 이는 急速히 成長하고 있는 우리 經濟가 充分히 견디어 낼 수 있는 水準으로 보여진다. GNP의 7%線이 絕對值로 보아 現時點을 基準으로한 北傀의 14%線과 같은 水準임을 意味하며, 傾向으로 보아 北傀의 軍事費에도 훨씬 未達되는 水準이다. 또한 이는 1960年代의 美國援助를 包含한 當時의 總國防費가 GNP 對比 8%水準이었다는 事實과 關聯하여 볼 때도 決코 過度한 水準은 아닌 것이다.

3. 結 論

國防은 觀念이나 口號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有備無患의 敎訓을 빌 것도 없이 우리는 當代에 戰爭을 몸소 겪었고 또한 中東에서 六日戰爭이나 十日戰爭 그리고 印支戰과 같은 實戰을 通하여 國防이 안되면 된 것은 도두 無意味 하다는 證據를 보아 왔다.

分明히 莫大한 國防費 特히 GNP의 7%라는 規模는 國家의 經濟發展이나 福祉向上에 그가 차지하는 만큼의 影響을 주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이것은 國難을 막고 生存키 위한 必須的인 豫防投資인 것이다.

共產黨 治下에서는 우리의 民族 正氣도 人權도 自由도 나아가 生存自體도 지킬 수 없다는 明白한 事實을 體驗을 通하여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를 위하여 무슨 苦難이 따르

24) 東亞日報, 1970. 8. 8.

라도 튼튼한 自主國防의 기틀을 다져 一次的으로는 北傀의 挑發을 抑止하고 將次, 반드시 우리가 追求하고 있는 眞正한 民主主義의 理念下에 國土와 民族을 統一하여 祖上 傳來의 生活터전인 韓半島에 平和롭고 繁榮된 國土를 建設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國民 모두가 應分의 防衛費 負擔을 하고 이렇게 하여 마련된 資源으로 敵보다 劣勢한 部分의 軍事力(hardware)을 時急히 補強하고 戰爭의 基本要素인 戰鬥員의 士氣(software)를 提高하여 이들로 하여금 「죽음을 무릅쓰고 責賃을 完遂하는 愛國愛族의 精神」을 堅特, 期死 護國토록 해야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DE 1963-1973, Washington, D.C., 1975
2. IISS, THE MILITARY BALANCE 1974-1975 London, 1975.
3. IISS, THE MILITARY BALANCE 1973-1974 London, 1974.
4. IISS, STRATEGIC SURVEY 1972, London, 1973.
5. Hitch, Charles J. and Mckean, Roland, N., THE ECONOMICS OF DEFENSE IN THE NUCLEAR AGE, Harvard Univ. Press, New York, 1966.
6. Morgenstern, Oskar, THE QUESTION OF NATIONAL DEFENSE, Random House, New York, 1959
7. Knorr, Klaus, THE WAR POTENTIAL OF NATIONS, Princeton Univ. Press, Princeton, 1956.
8. Huntington, Samuel P., THE COMMON DEFENSE, Columbia Univ. Press, New York, 1966.
9. Beaufre, Andre, AN INTRODUCTION TO STRATEGY.
10. Safran, Nadav, FROM WAR TO WAR, New York, 1969.
11. 國防部, 75國防豫算統計, 서울, 1975.
12. 中央情報部, 南北韓經濟力比較第Ⅷ卷, 서울 1974.
13. 中央情報部, 北韓軍事費推計判斷, 서울, 1973
14. 高麗大學校 社會問題研究所, 國民所得과 關係해 본 國附費, 1965.
15. 閔丙天, 自主國防의 概念과 韓國的 適用問題 「國防研究」 1971. 9
16. 李康齊, 國防財政管理研究, 「國防研究」 1972. 6.
17. 李康齊, 經濟發展과 國防經濟力, 「國防研究」 1973. 6.
18. 白恒基, 韓國 安全保障의 經濟的 次元, 「國防學報」 제 4집,
19. 全炳元, 防衛産業의 課題와 方向 「韓國安保論叢」 제 5집 서울 1973